

2016년도 제3회 청렴옴부즈만 회의 결과

□ 회의 개요

- 일 시: 2016. 8. 11.(목) 14:00~18:00
- 장 소: 12층 국제회의실
- 참석자: 4명
 - 참석: 윤진희(위원장), 이상엽(위원), 이홍권 (위원), 박세인(위원)
 - 불참: 최태진(위원)
- 안 건
 - KISTEP 인쇄물 출입업체 등록 및 단가계약 체결 추진계획 관련 개선 방안 논의
 - 평가과정 참관을 통한 선정기준, 내자구매요령 등 운영개선사항에 대한 의견발굴 및 제시

□ 회의 결과

- 옴부즈만으로서 KISTEP 인쇄물 등록업체 선정평가 과정을 참관하여 평가과정의 공정성 여부 판단 및 개선사항을 제시함
- 제시된 의견을 담당부서에 송부하여, 반영이 필요하며 현실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제도화를 권고하고자 함
- 참관결과 의견
 - 윤진희 위원장
 - 업체에게 참여하는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기본원칙은 매우 긍정적임
 - 서류평가와 인쇄능력평가로 이원화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
 - (제안) 각 업체명이 평가위원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블라인드(Blind)로 하면 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- 이상엽 위원

-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
- 인쇄업체도 전문화 되는 경향이므로, 내부에서도 ‘경인쇄’, ‘칼라인쇄’ 등으로 구분하여 업체를 등록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
- (제안) ‘인쇄물 등록업체’에 관한 ‘내부규정화’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

- 이흥권 위원

-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며 전문성 있는 위원을 섭외하는 등 프로세스 상 미흡한 점은 크게 없음
- (제안) 평가위원들이 평가하지 않는 부분인 ‘서류평가(30점)’은 평가표에서 제외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- (제안) 기관이 요청한 자료(컬러, 리플렛) 미제출에 대한 기준 객관화 필요

- 박세인 위원

-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평가가 진행된다고 판단됨
- (제안) 정성평가지 평가위원들이 휴대폰 통화나 문자 연락 등을 통한 외부 인쇄업체와의 소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평가지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짐

○ 회의증빙 사진

